

로컬뉴스

김제시, 정부3.0 '우수지자체'

김제시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선 우수자치단체로 인정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김제시는 행정자치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항목(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8개 세부지표(정부3.0 변화관리,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식 개선 등)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 (단장 오철호 송실대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 사례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국민관점·국민참여·국민주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차별화된 자발적 안전시스템인 '마을 안전보안관', '복지기동대',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 기동반 운영'과 소외계층,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등 다양한 정부3.0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생활개선회, 고추장 담아주기 봉사활동 펼쳐

연말연시를 앞두고 부안군 생활개선회(회장 김정례)가 외롭고 쓸쓸하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고추장을 담아 나누는 고추장 담아주기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안군 생활개선회는 10년째 고추장 담아주기 봉사로 한국인의 식탁에 꼭 필요한 양념인 고추장을 담아 12개 읍면 소외된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에 우선 전달하는데 200여 가정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솜씨와 정성이 가득한 고추장 맛을 보게 됐다.

더욱이 회원들은 직접 재배한 고추와 정성껏 기른 엇기름을 가져와 3일 간 건조하고 쪄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쁨과 보람이 커 오히려 큰 연말 선물을 받을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금융기관 범죄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 상동 지구대가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강도 등 금융기관 상해 범죄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려고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 금융기관 범죄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28일 상동 지구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용철 상동 지구대장은 최근 금융기관 상해 범죄 특성과 수법 등 사례를 소개하고, 취약시간대 집중 되는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현금수송 요청시 순찰차를 적극 지원해 주기로 협의했다.

특히 상동 지구대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수법을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고객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지 유심히 살펴 사기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읍 농협 상동 지점 유영선 부지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갖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며, "금융기관에서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알찬 결실 거뒀

올 한해 37개 분야 표창 수상·3억 2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시(시장권한 대행 부시장 이승복)는 올 한해 중앙정부, 전라북도 및 각종 기관·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총 37개분야 표창 수상과 3억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한 시민 감동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중앙정부 평가에서 ▲김제 지평선축제,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문체부)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2015 지방규제개혁 우수(행자부) ▲농산식품 추진 우수 기관(농식품부) ▲지역분야 최우수 기관(국토부) ▲마을번호소재 모범 지자체 선정(법무부) ▲2015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여가부) ▲지역복지사업 우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복지부) ▲산림분야 기초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산림청) ▲정부 3.0 우수기관(행정자치부) 등을 수상하였다.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대상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최우수 ▲국민건강 영양관리사업 최우수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최우수 ▲정보보안관리 실태평가 우수 ▲구강보건사업 우수 ▲청렴마일리지제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합동평가 1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민선6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경진대회 우수 ▲전국 명품쌀 평가 최우수(지평선방아질는 날 끝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지평선축제 2016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세계명품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김제시는 시정 각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외부기관의 우수한 시정 평가뿐만 아니라, 주요현안 사업에서도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전국 최초 특장차 전문 백농공단지 준공과 김제 100년의 먹거리인 국

내 유일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과 민간육종단지특구 지정은 김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김제육교(과선교)는 2017년도에 국가예산 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재가설 공사가 가능해졌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만경 화포지구가 공항부지로 급부상하는 등 명실상부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은 "AI 발생 등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내년에도 시민, 사회단체, 지역정치인, 공무원 등이 모두 합심하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기자단, 시의회 '언론 길들이기' 강력 반발

"신문구독료 삭감 보복성 예산심사" 유감 표명

(속보) 김제시출입기자단(이하 김제시기자단)은 28일 김제시의회 의원 언론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기자단은 이날 "김제시의회가 내년도 김제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의 신문구독료를 삭감하는 보

복성 예산심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제시의회가 이제 도를 넘어 언론에게까지 신문구독료와 홍보비를 불모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비판 기사에 따른 취재권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제시기자단은 "김제시의회는 비판

기사 보도에 따른 보복성 예산삭감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신문구독료 등을 통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며 "김제시민과 언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멈추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 15일 정기회를 폐회하면서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의 내년도 시정 홍보비와 신문구독료 예산 결산을 삭감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협 정기총회 2016 결산·임원 선임·2017 사업설명회

사)부안군 귀농귀촌협회의는 지난 27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6년 사업결산, 신규임원 선임, 2017년 사업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기총회 후에는 2017년 귀농귀촌 추진정책과 변경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6차 산업 창출설립과 농업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배우는 강의로 이뤄졌다.

지음국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부안으로 귀농귀촌을 통해 정착한 761세대 950명 여러분



은 부안의 장자이자 만능너리로 부안 역동성의 주축이 되실 분들"이라며 "1778세대 2666명의 부안군 귀농귀촌인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선·후배 간 멘타-멘 토로 안정 정착과 부안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규 군수는 "귀농·어 및 귀촌 활성과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등 소통·공감·동행 토론회를 통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발굴해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달남약수 '인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석탑 읍수대·계단식 급수대 설치

정읍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정읍시 달남약수'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는 상수원 오염이나 고갈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정읍시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정읍시약수터'를 개발, 시민들에게 개방해왔다. 특히 올해 초 '백제가요 정읍시'를 콘텐트로 한 정읍시공원의 명칭에 걸맞게 명칭을 '정읍시 달남약수'로 개칭하고 시설도 확충하는 등 새롭게 정비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읍시 달남약수'의 관광자원화에 나서 스토리텔링한 설화를 제작하고 이를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한 청사초롱 회전조명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 가로형 간판과 시설 보호용 주차 블록 등을 설치해 내외국인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바가지 없이

도 위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석탑읍수대와 사립의 키와 물병 높이에 맞춘 3단 계단식 급수대, 그리고 유사 시에 아파트단지나 마을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급수차용 급수전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달남약수 편의시설 확충으로 30% 이상 절수와 절전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시민들이 이제는 허리 펴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 달남약수'의 시민편의를 위해 시설 확충과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을 보강했다"며 "이 약수는 시민의 생명수가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깨끗하게 사용돼 달리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재선총병 방제사업 총력

만경읍·청하면 일원 예방나무주사 추진

김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방제기간인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만경읍·청하면 일원, 도시공원 등 약60ha에 대하여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만경읍에 총5본의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견되었으나 시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추가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는 죽어가는 소나무에 알을 낳아 월동하므로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인 만경읍과 청하면 일대를 정밀 예찰하여 고사목등을 벌채하고 두께 2m 이상



가지까지 전량 수집·파쇄하고 있다. 김제시는 2017년도에 약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 소나무에 약제를 주사하여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의 새순을 먹을 때 살충의 효과로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등 17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